

톱타자 고민 '1'도 안했는데... KIA '부상 복병'



최근 8경기 4할대 타율 이명기 발목 부상에 결장... 버나디나·김선빈·김주찬 1~3번



KIA 타이거즈의 '톱타자' 찾기가 다시 시작됐다.

6연패 뒤 5연승으로 반전에 성공한 KIA의 막판 스피드에 걸림돌이 하나 생겼다. 이명기(사진)가 발목 부상으로 지난 4일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상승세의 타선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명기는 지난 시즌 끝내 풀지 못했던 KIA의 톱타자 고민을 잊게 한 '복병'이다.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KIA로 이직한 뒤 '3할 군단'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전명에서 KIA의 1위 질주를 이끌었다.

이명기로 톱타자 고민을 풀 KIA는 버나디나를 3번으로 돌리며 화려 극대화라는 효과까지 누렸다.

이명기의 성적에 따라서 팀 타선도 부침

을 겪었다. 최근 이명기의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KIA의 타선도 침묵했다.

KIA가 올 시즌 최다연패를 기록했던 지난 8월 6연패 기간 이명기는 18타수 3안타로 0.166의 타율을 기록했다. 나갈 기회가 줄어들면서 득점도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KIA가 연패에서 탈출하고 6승 2패로 반전을 이뤘던 최근 8경기에서는 37타수 17안타, 타율 0.459의 맹타를 휘둘렀다. 도루도 2개를 기록하는 등 이명기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8경기에서 10득점 5타점을 수확했다.

이명기 본인도 타석에서의 여유를 찾았다며 타격 상승세를 이야기했다.

이명기는 "앞서 성적이 좋지 못했을 때는 공에게 담배는 느낌이였다. 날도 선선해지면서 컨디션이 좋다.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며 뜨거운 가을을 예고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왼쪽 발목 통증을 안고 있던 그는 지난 3일 넥센 원정경기서 펜스 수비를 하다가 발목 염좌 부상을 당하며 결국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공격의 물꼬를 터주던 이명기가 빠지자 KIA는 5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선 경기와 다른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버나디나가 1번으로 이동했고, 김선빈이 그대로 2번을 지킨 가운데 지난달 26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었던 김주찬이 3번 자리에서 7경기 만에 스타팅 멤버로 출격했다.

막강한 타자들로 1-3번을 구성하며 이명기 공백 지우기에 나섰다. 부상 고민은 남아있다.

김선빈도 이명기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김주찬도 허벅지 상태가 완벽하지는 못하다. 부상을 안고 김선빈과 김주찬이 공격 전면에 나선 만큼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

예상치 못한 부상 복병을 만난 KIA가 어떤 '1번' 전략으로 9월말 6점차 대패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1위 고지를 향해 전진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선발 잔류 시험대 오늘 애리조나전 설욕 나서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 잔류를 목표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상대는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다.

류현진은 6일 오전 11시 10분(이하 한국시간) 2017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목표는 설욕이다.

류현진은 8월 31일 애리조나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홈런 3개를 내주며 8피안타 6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애리조나와 경기 전까지 후반기 6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54로 호투했던 류현진은 이 경기 부진으로 '후반기 에이스' 타이틀을 내리놓아야 했다.

호재는 있다. 8월 31일 류현진에게 투런 홈런을 치는 등 개인 통산 맞대결에서 21타수 9안타(타율 0.429), 2홈런, 7타점을 기록한 폴 골드슈미트를 피할 수 있다.

MLB닷컴은 5일 "골드슈미트가 오른 팔꿈치 검진을 위해 피닉스로 떠났다.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골드슈미트는 6일 경기에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FIFA 랭킹 산정방식 변경

러 월드컵 진출국 확정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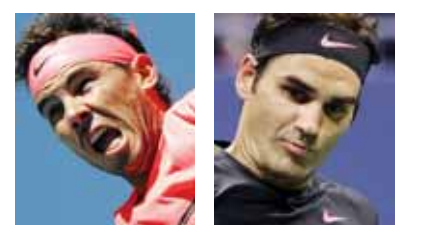
국제축구연맹(FIFA)가 현재의 랭킹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에 따르면 FIFA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세계 랭킹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월드컵 진출 국가가 정해진 뒤 랭킹 산정 방식의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FIFA 랭킹 산정 방식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이후 만들어졌다. 이 랭킹이 중요한 이유는 월드컵 본선에서 시드 배정시 사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에는 랭킹 상위 7개 팀과 개최국 러시아가 1번 시드를 배정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강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는 국가가 친선경기 일정 자체가 적은 팀에 비해 유리하다는 등의 형평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대륙간별 대회 역시 2년 또는 4년마다 다르게 개최돼 배점이 일정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어왔다.

/연합뉴스



나달

페더러

나달-페더러

US오픈 4강 격돌 임박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의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040만 달러·약 565억원) 4강 맞대결이 현실화하고 있다.

나달은 5일 미국 뉴욕 빌리 킨 쉐리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단식 4회전에서 알렉산드르 돌고폴로프(64위·우크라이나)에 3-0(6-2 6-4 6-1)으로 완승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나달은 1시간 41분 만에 경기를 마치며 체력을 아꼈다. 나달의 8강 상대는 안드레이 루블레프(53위·러시아)로 정해졌다.

1회전과 2회전에서 폴세트 점전을 펼친 페더러는 3회전과 4회전을 모두 '셋아웃'으로 통과했다. 페더러의 8강 상대는 2009년 US오픈 결승에서 만난 후안 마르티넬 포트로(28위·아르헨티나)다.

나달과 페더러가 8강에서 나란히 승리하면, 4강에서 둘의 대결이 성사된다. /연합뉴스

미프로야구 트리플A 한국 선수 현주소



박병호
빅리그 감감

5일(한국시간)자로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A 정규시즌이 막을 내렸다.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시즌을 보낸 한국인 'AAA(트리플A) 삼총사'의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만행 박병호(31)는 콜업을 기다리며 마이너리그에서만 시간을 보냈지만, 부상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2017년을 마감할 처지다.

황재균(30)은 "메이저리그 한 타석만 서보자"는 꿈은 이뤄지만, 내년 시즌 KBO 리그 복귀가 유력하다.

막내 최지만(26)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냈고, 잠시 머물렀던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과를 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빅리그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로체스터 레드윙스 소속 박병호는 이날 트리플A 시즌 최종전을 가래트 부상 때문에 빼졌다.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해 박병호에게 더 남은 마이너리그 경기는 없다.



황재균
국내행 임박

박병호의 트리플A 최종 성적은 111경기 타율 0.253(419타수 106안타), 14홈런, 60타점이다.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채 올 시즌을 맞이한 박병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353(51타수 18안타), 6홈런, 13타점으로 활약해 빅리그 진입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9월 확장 로스터 시험 때도 박병호는 부름을 받지 못했고, 잔여 시즌에서 가래트를 다치기까지 했다.

미국에서 2년 차 시즌을 보낸 박병호는 아직 계약이 2년 더 남았다. 미국 내 타팀 이적이나 국내 복귀 모두 거론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새크라멘토 리버캐츠에서 뛰는 황재균 역시 이날 시즌 최종전에 결정했다. 이로써 황재균의 트리플A 최종 성적은 98경기 타율 0.285(351타수 100안타), 10홈런, 55타점이 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메이저와 마이너 신분에 따라 연봉 차



최지만
빅리그 눈앞

등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태평양을 건넌 황재균은 두 차례 메이저리그에 콜업, 꿈에 그리던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율 0.154(52타수 8안타), 1홈런, 5타점에 그쳤다.

9월 확장 엔트리 때 다시 한 번 빅리그 진입을 노렸지만, 파블로 산도발 영입으로 3루를 채운 샌프란시스코는 그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다. 샌프란시스코와 1년 계약을 맺었던 황재균은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양키스 산하 스킨턴/윌크스배리 레일라이더스 소속 최지만은 아직 희망이 있다. 일단 소속팀이 트리플A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기회를 보여줄 기회가 남았다.

최지만의 트리플A 최종 성적은 87경기 타율 0.288(292타수 84안타), 15홈런, 69타점이다. 시즌 중 잠시 콜업돼 양키스 유니폼을 입기도 한 최지만은 6경기 타율 0.267(1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장애인체전 12위 달성” 전남 선수단 결단식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전남장애인체육 소속 선수들이 5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종합 12위 달성을 다짐했다.

결단식에는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 대행 등 체육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사진>

행사는 박석환 총감독(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참가계획 보고와 선수단 선서, 단기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특장버스를 마련하여 키 전달식도 진행하는 등 선수단과 결단식에 참석한 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특장버스는 국내 최초로 우등좌석을 설치해 장거리 이동시 선수단이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결함을 예방할



수 있게 국내 최초로 리프트덮개를 추가 개발 장착하는 등 선수단 이동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특장버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인간성은 우리 200만 도민에게

정량적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힘써 주시길"을 당부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남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515명(선수 325명, 경기임원 130, 본부 60)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